

광주 대기업들 사업구조 특화... 재도약 날갯짓

광주지역 대기업이 사업분야 특화에 나섰다. 최근 동부그룹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이어 지역 대기업들이 사업구조를 잇따라 개편하면서 지역산업계가 고부가가치 구조로 변화할 전망이다.

20일 광주시와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LG이노텍(광산구 장덕동)은 광주공장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 전자부품 특화기지'로 육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학솔루션'과 'LED', '차량전장'으로 이뤄진 3개 사업부를 전문화하고, 자동차 전자부품 생산 집적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기도 광택공장의 차량용 텔레매틱스 설비 라인을 광주로 이전하고 있으며 올 5월부터 양산

에 들어갈 예정이다. 텔레매틱스는 통신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내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성장 유망사업으로 꼽히는 분야다. 또 구미공장의 차량용 면광원 LED램프 설비도 올 초부터 이전에 완성차 업체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업계 최초로 1300만 화소 '카메라모듈'(휴대폰 및 모니터에 들어가는 카메라) 상용화에 성공한 LG이노텍은 최근 카메라모듈 생산을 늘리면서 경남 구미공장의 전문인력 150여 명을 광주공장으로 파견했다. 카메라모듈 생산량은 지난해 하반기 전년보다 3배 이상 상승했다.

LG이노텍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 LG이노텍

車 전자부품 집적화 평택 라인 광주 이전

■ 한국알프스

車 스위치기술개발 연구인력 50명 채용

"생산중인 자동차 부품을 광주공장으로 집중시킬 계획"이라며 "양산이 늘어나면 인력 채용 등 고용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기여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알프스(광산구 장덕동)도 자동차 전장부품 및 휴대폰 부품을 특화·육성하기 위해 매출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국알프스는 일본 본사로부터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능력을 인정받아 일본 내 연구소가 진행하던 '도어모듈'(자동차 문을 여닫는 장치)과 '파워미러'(자동차 사이드미러 조정장치) 스위치 기술개발 연구업무 일체를 광주공장으로 이전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규 연구개발인력 50명을 채용했다. 지난해 한국알프스는 완성차 업체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이 2011년에 비해 300억 원이 늘

어난 3500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 2월 동부그룹에 인수된 대우일렉은 지역 가진산업 규모를 키우는 데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그룹이 대우일렉의 매출을 현재 1조4000억 원에서 2017년까지 3조5000억 원 대로 키우겠다고 밝힌 만큼, 생산설비 보완과 신제품 개발 등의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은옥 광주시 전자금융산업 담당은 "대기업의 산업부문특화와 발맞춰 연구기관과 대학을 대기업과 연계시켜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는 등 협력기업 육성 지원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도심 마지막 아파트

연제동 '대광로제비앙' 성황리 분양

광주 도심에 분양하는 마지막 아파트가 될 대광로제비앙이 지난 15일 견본주택을 개소하고 성황리에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북구 연제동 217-7번지에 들어서는 대광로제비앙은 지하 2층~지상 14층, 전용면적 84㎡(25.4평)~105㎡(31.7평) 규모 총 375세대로 구성됐다. 신규 아파트 인허가가 더 이상 불가능한 광주 도심 중심에 있는 마지막 아파트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화제가 됐다. 특히 3.3㎡ 당 평균 700만 원대를 훌쩍 넘는 신규분양시장에 비해 100만 원 이상 저렴한 549만 원에서 분양하기 시작되는 것도 고객의 큰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광주의 관문인 동림IC 옆에 들어서는 대광로제비앙은 빛고을 대로와 직결돼 상무지구와 광주 시청까지 5분대만 연결되며 광주의 새로운 교통중심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영산강 조망이 가능하며 인근에 수변공원과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이 인접해 자연과 문화특권이 풍부하다. 연제초등학교와 양산중학교를 비롯, 고려고, 국제고, 경신고, 중앙여고, 광주예술고, 광주제고, 전남대 등 학군도 뛰어나다.

2006년 이후 발코니 폭 제한으로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광복발코니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졌지만, 대광로제비앙은 그 이전에 승인받은 아파트로, 광복발코니 설계가 적용되는 것도 장점이 다. 1, 2순위 청약일은 21일이며 3순위는 22일 진행된다. 문의 (062-528-770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 개소 협약...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20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목포·순천·여수·광양상의와 공동으로 서울 용산역 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 개소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경제인원을 위한 비즈니스라운지는 용산역 4층에 설치되며 4월 중순부터 운영된다. (광주시 제공)

광주産 대우일렉 15ℓ 전자레인지 2년6개월만에 판매 50만대 돌파

광주에서 생산되는 대우일렉트로닉스 15ℓ 전자레인지가 누적 판매 50만대를 돌파했다. 대우일렉은 20일 지난 2010년 8월 업계 최초로 출시한 15ℓ 전자레인지가 국내시장 10만대, 해외시장 4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2년6개월 만에 50만대가 넘게 팔렸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535대로 2분40초마다 1대가 팔린 셈이다.



이 제품은 싱글족 등 틈새시장을 노리고 업계 최초로 출시한 15ℓ 크기로, 기존 20ℓ 제품 대비 외관사이즈는 35% 이상 줄었지만 실용면적은 20ℓ 제품과 동일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해외시장에서 특히 호응이 커 북유럽과 중남미 등지에서 인기몰이에 성공하며 30여 국가에 수출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기본 제품과 차별화된 사이즈와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을 앞세워 내수와 수출 모두 성공했다"며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소형전자레인지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산 신차 결합 있어도 교환·환불 어려워

휴대전화·TV 등 일반 공산품 하자 보상 기준 적용

결합이 있는 국산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으려면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하자 피해 가운데 신차 비중은 10%에 달한다. 자동차 제조사의 품질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20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는 1천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구매 1년 이내 차량인 신차 관련 불만은 131건으로 10.4%였다.

신차 관련 불만은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거나 시동 안 걸림, 주행 중 핸들 잠김, 불안하게 치솟는 RPM이나 이상 소음 등으로 운행 시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심한 차체 떨림, 제어장치 이상, 배터리와 타이어 등 차량 부품 하자도 불만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신차 결합 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친다.

현재 불량 신차 교환 및 환불 기준은 다른 공산품과 같이 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다.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12개월 이내 중대결함과 관련해 동일 하자 4회 이상 시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의 경우 작은 결함으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이 좌지우지될 수 있음에도 휴대전화나 TV 같은 일반 공산품과 같은 하자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중대결함으로 큰 사고가 나도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또다시 목숨을 걸고 증상이 재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연합뉴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SNS 해외마케팅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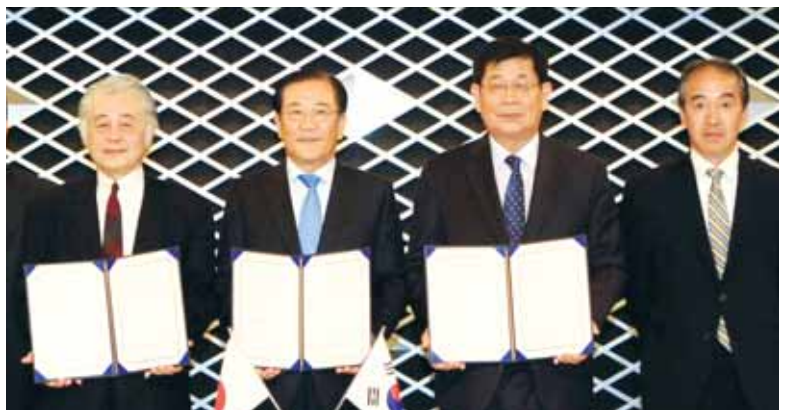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0일 광주무역회관에서 지역 무역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무역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e마켓플레이스인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를 비롯해 링크드인·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제품의 온라인 홍보와 해외 바이어 발굴 기법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또 아직 SNS에 익숙하지 않은 수

출 초보기업들을 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마케팅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는 B2B 소셜미디어 마케팅 도입과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소셜익스피리언스랩 김철환 대표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목표고객을 분명히 설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해야 한다"며 "단순 홍보보다는 주제를 스토리텔링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



전남도 도서 1억8000만달러 투자협약

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을 순방 중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해온 침상코르크와 인공 제올라이트 생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박 지사는 국내 포스코켄텍의 합작투자사인 MMP, 수질 정화제 생산기업인 MIT 제켄과 총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19일 체결했다. 포스코켄텍은 국내 굴지의 제강회 네트워킹을 구축해야 한다"며 "단순 홍보보다는 주제를 스토리텔링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

크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미쓰비시화학의 기술제휴를 하고 미쓰비시화학의 출자사인 MMP사가 1억7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합작투자법인 PMC 테크(Tech)사를 설립,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 총 4820억 원을 투자해 2014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PMC 테크가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들어가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는 7번째로 '프리미엄 침상코르크'(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콜타르를 활용해 만드는 고부가가치 탄소소재)를 생산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59.41 (-19.15)	코스닥지수 546.26 (-3.75)	금리 (국고채 3년) 2.60% (0.00)	원·달러 환율 1116.10원 (+4.50)
---------------------------	-------------------------	-----------------------------	-----------------------------

15일간 백두산악이 드리는 최고의 봄맞이 선물

의류전품목! 무조건 50%

주)백두산악 무등산점 062-236-1187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출판) 문의전화 062)383-3000